



마감작업을 위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소명출판사 식구들
좌부터 박성모 대표, 편집자 김보영 씨, 김혜원 대리, 이홍주 디자인 실장

학술서 전문 소명출판사의 외고집 10년

“우리가 아니면 낼 수 없는 책”으로 지켜가는 출판의 소명

국문학 분야의 선도적이고, 진보적인 바람

소명출판사는 1998년 국문학 서적 전문 출판사로 출발했다. 첫 번째 책은 《18세기에서 20세기 초 한국 시가사의 구도》. 소장학자로 이름을 얻고 있던 고미숙 씨의 연구논문집이었다. 18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 고전시가의 궤적을 리얼리즘적 시각에서 분석해 한국 시가의 시대적 의미를 밝히고 있는 책이다. 이후 출간된 민족문학사연구소의 《한국고전문학작가론》, 김복순의 《1910년대 한국문학과 근대성》, 박현호의 《이태준과 한국 근대소설의 성격》 등 소명출판사의 초창기 책들은 당시 국문학 분야에서 선도적이고, 진보적인 바람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소명출판이 이런 새로운 책들을 출간할 수 있었던 데는 국문학도였던 박성모 대표의 영향이 컸다. 현대문학 박사 학위를 준비했던 그이기에 학계의 지형도를 꿰고 있었고, 덕분에 좋은 필자와 원고를 발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출발한 지 10년, 이제 국문학 전문에서 학술서 전문으로 그 영역은 확대되었지만 ‘학술서’만 출판하는 외고집을 지켜온 지난 10년간의 어려움은 만만치 않았다. 출판계 안팎에서 ‘인문학의 위기’를 논하는 지금, 학술서 외고집을 지켜온 박 대표의 생각은 남다를 듯 하다.

“힘들다는 얘기는 출판계에서 늘 하는 것이니 특별한 얘기도 아니지요. 인문학이 사람의 내적, 외적 무늬를 끊임없이 다시 그리는 작업이라고 할 때 인문학의 위기는 일종의 ‘숙명’ 입

니다. 문제는 인문학의 위기를 생존의 무기로 내세우는 출판계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책 자체의 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승부하려는 책들은 이런 위기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10년을 지켜온 학술서 외고집

이런 박 대표의 철학이 소명출판사에서 출간되는 책들에 속속들이 배어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 소명출판이 곳곳하게 지켜온 원칙은 이제 독자는 물론 필자나 출판계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다보니 기를 쓰고 ‘어려운’ 길로만 가려는 외고집에 대한 격려와 칭찬도 주어졌다.

소명출판이 학술진흥재단과 공동으로 펼치는 동양고전 번역간행사업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는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다. 소명출판으로는 학술진흥재단의 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늘 쪼들리던 제작비에도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게다가 이 저작물은 각 매체의 우수도서로 거의 매년 선정되기도 하는 ‘효도 저작’이다. 이렇게 책으로 상을 받는 일이야 자주 있어왔지만 작년에는 박 대표가 간행물윤리상까지 수상하는 경사가 겹쳐 박 대표와 직원들은 몇 배의 뿌듯함을 느꼈다.

“간행물윤리상’의 추천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리 기대하지 않았기에 소명서도 간단히 써서 제출했습니다. 직원들은 ‘들러리’ 서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더군요. 예상과 달리 수상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열덜덜했습니다. 더욱 열심히 책 만들라는 격려와 채찍질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애써준 직원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상이지요.”

사실 우리가 ‘학술서’로 불리는 것들에 대해 갖고 있는 통념은 ‘지루함’이다. 단어 하나에 3~4쪽에 이르는 주석을 달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한자나 영어가 난무하는 뻘뻘한 텍스트 앞에서는 답답함을 넘어선 무력감을 느끼기기도 한다. 그렇지만 ‘학술서’에 빠진 이들은 학술서가 지니는 독특한 매력에 대해 할 말이 많다. 학술서는 저자가 흘린 땀만큼 그 깊이와 질이 담보된다는 점에서 요령을 허락하지 않는다. 텍스트 자체가 지니는 그런 성실성 때문에 ‘학술서’를 향한 애정을 버릴 수 없다고 말하는 박 대표.

“지금도 학술서가 아닌 것을 별로 믿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보는 책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학술서만이 가지는 독특한 매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석 하나를 찾기 위해 며칠 밤을 새우는 저자들의 열정, 그리고 그 끝에서 오는 희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만둔 공부에 대한 대리만족도 있겠지요.”

대표보다 책 욕심 많은 직원들

에디터 2명과 디자이너 1명, 그리고 영업직원 1명까지, 소명출판사의 식구는 모두 4명이다. 적은 인원으로 꾸려가는 출판사인 만큼 대표와 직원들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리 없다. 게다가 출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은 기본이고, 교정 외주를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학술서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없다면 하기 힘든 작업이다.

그런 면에서 소명출판사의 직원들은 박 대표 못지않은 학술서 '신자' (?)들이다. 올해로 3년째 호흡을 맞춰오고 있는 이홍주 디자인 실장의 경우, 초창기부터 디자인 작업에 관여했기 때문에 학술서에서 디자인이 갖는 섬세한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표지는 독자들이 만나는 첫인상입니다. 표지로 인해서 사람의 손이 가고, 손이 가야 책장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학술서라는 장르적 한계 때문에 대중서처럼 무조건 튀는 디자인만 고집해서도 안 되고, 옛날 학술서들처럼 그런 흥미를 떨어뜨리는 단조로운 디자인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제약과 디자인의 개성을 적절히 조화하는 것이 학술서 디자인의 관건입니다.”

INTERVIEW

소명출판 박성모 대표

힘든 10년이었지만 알아주는 필자와 독자들 있어 보람과 자부심 느껴

박성모 대표는 스스로 “주변머리가 없고,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사장”이라고 말했지만 직원들은 박 대표에 대해 “일에 있어서는 원칙주의자이지만 그외의 부분은 한없이 인간적인 분”라고 평했다. 칭찬에는 저자와 직원을 앞세우고 잘못에는 자신을 책하는 박 대표. 나직하고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학술서 전문 출판사를 10년 동안 꾸려온 것만으로도 그의 저력은 짐작하고 남는다.

Q. 처음 출판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A. 문학에 대한 꿈을 접고, 이론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이론에 깊이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교수님들의 원고를 교정하면서 이쪽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10년 전 출판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념의 시대가 가라앉는 시기였기에 좌파적이거나 진보적인 분들이 책을 낼만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념적 성향을 떠나서 그런 분들의 실력이 정말 뛰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런 분들의 자존심을 세워줄 만한 출판사가 별로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소위 명망가로 불리는 잘 나가는 저자들보다는 오로지 실력에 의해 저자를 발굴해서 그 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어떤 책인지요.

A. 좀 악몽 같은 책이 있습니다. 9권짜리 (간디 선잡)인데요, 국내에서 간디에 대해 출간된 책들 중 간디에 대한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책으로 이만한 책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존경스럽고 유의미한 작업이었지만 역자의 끊임없는 수정 탓에 좀 힘들었습니다. 번역서에 있어 수정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책이 출간되자 계약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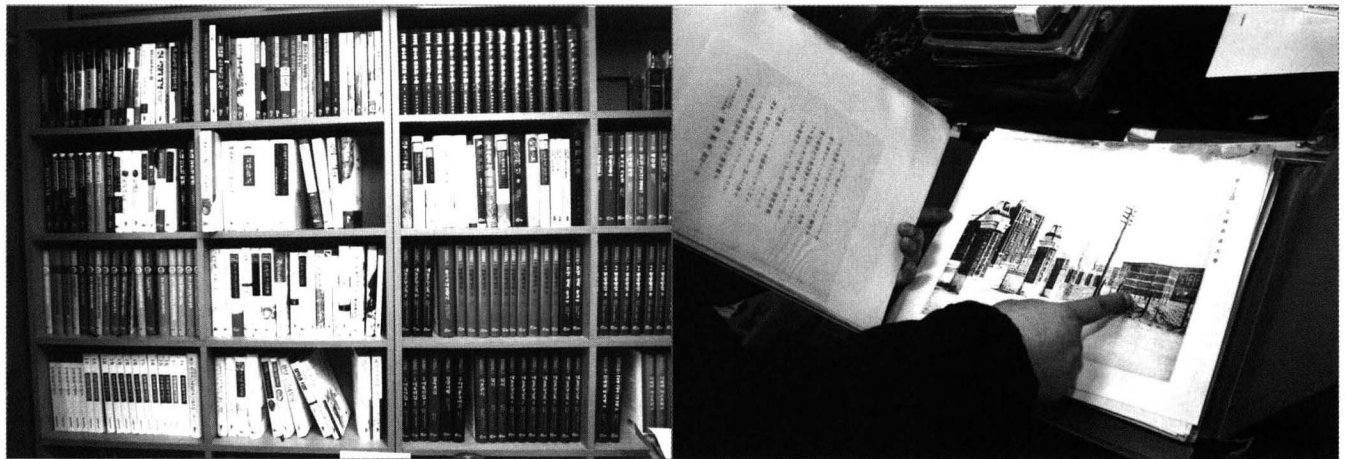
Q. '소명'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을 듣고 싶습니다.

A. 참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우선 작고 예쁜 이름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웃음) 물론 '소명'이 갖는 그 원문적인 의미를 부정하기는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작업이었는데 다른 분들이 그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인식들을 해주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지만 부담도 됩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A.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잘 나가는 저자를 쫓아가기 보다 숨어있는 저자를 찾아내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출판사가 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학술서 출간이 힘들기는 하지만 이제는 알아주는 필자나 독자들이 있어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아니면 낼 수 없는 책을 출간할 것이고,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임화 문학상'이나 '임화 예술상'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에서 임화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남다른에도 불구하고 임화 문학상이나 예술상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큰 규모로 하기는 힘들겠지만 반드시 만들 계획입니다. 독자들이 이런 저희의 작업에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보다 더 큰 격려는 없겠지요. **장문**



▲ 학술서 출판 1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소명 출판사의 서가.

▲ 《식민지 시대》(가제)를 위해 오랫동안 모아온 자료들을 설명하는 박 대표.

주석이 있는 학술서는 편집에 있어서 특성상 보통 책의 두 배 이상 시간이 들게 된다. 그러다보니 저자와 약속한 시간에 출간하기 위해서 야근을 하는 일도 다반사다. 지난 겨울부터 공석인 편집장을 대신해 편집을 책임지고 있는 김혜원 대리는 출판사 차원 이전에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시간 약속이기에 '자발적인' 야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회사 일 이전에 저자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야근을 자주 하는 편이지만 '자발적'인 셈이지요. 사장님은 이제 일정 부분은 외주로 돌리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시지만 이제까지 지켜온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그 문제는 더 고민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 대리가 힘든 것은 이런 일적인 부분보다 오히려 청탁이 들어온 원고를 '거절'해야 하는 전화를 해야 할 때이다. 지금도 소명출판사에는 출간 여부를 기다리는 원고들이 밀려있다. 워낙 까다롭게 책을 검토하다보니 출판사의 방향과 맞지 않거나 인력 구성상 출간이 불가능한 경우 거절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그것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거절하는 것도 힘든 일이니깐요. 그렇다고 우리와 맞지 않는 책을 출간할 수는 없으니까 원칙을 지킵니다. 한마디로 고집쟁이 출판사이죠. 사장님이 생각하는 소명과 그 고집의 의미가 비슷하게 맞물리면서 소명출판의 이미지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출판은 지금 8년 동안 준비한 <임화 전집>의 출간을 앞두고 있다. 박 대표는 <임화 전집>이 소명출판사 1단계를 마무리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2단계의 포문을 여는 책은 식민지 시대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식민지 시대》(가제)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아니면 낼 수 없는 책”이라는 박 대표의 말 속에는 출판의 사명을 다하는 이들의 자부심이 살아 숨신다.

단지 자본력이나 잘나가는 저자에 기대어 출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 만큼 더욱더 '책'의 본연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소명 출판사의 고집. 그 고집은 인문학의 위기를 말하는 지금의 출판계가 한번쯤은 성찰해야할 아름다운 고집이다. **한글**

취재 이주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